



##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출연한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영상

### 'IN PURSUIT OF CHANCE'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

예거 르쿨트르가 새로운 타임피스,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In Pursuit of Chance'* 영상을 공개합니다.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이번 영상에서 그랑 메종의 프렌즈인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신 재능으로, 모던하고 로맨틱한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신비롭고 극적인 배경을 무대로 삶과 사랑 그리고 별에 담긴 기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실 수 있습니다.

*In Pursuit of Chance* 는 삶이란 단순히 행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본연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원하는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쌓아 올립니다. 별뿔별을 뜻하는 슈팅스타는 물리적인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현상이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천체 현상이며,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참여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삶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라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설명합니다. "저에게 슈팅스타는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죠. 슈팅스타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 무언가 마법처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도전을 목전에 두고 소원을 빌면 그래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영상의 촬영지는 아티스트 겸 조각가인 자비에 코베로(Xavier Corbero)가 디자인 및 제작한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높이가 각기 다른 기하학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커커이 쌓아 올리되 공중에 떠 있는 계단이나 곡선형 아치처럼 연결시켜 미로와도 같은 극적인 효과를 준 기념비적인 조형물의 형태를 띠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과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를 선보입니다. 시계 페이스에서 하늘 위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시선을 따라가면 슈팅스타가 찬란한 빛을 내며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늠하는 조용한 사색의 순간이 지나가자 비로소 운명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긴박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순간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슈팅스타가 바람을 이루기 위한 존재였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려 다이얼을 가로지르는 슈팅스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운명을 향한 다짐을 이어갑니다.

####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타임피스**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신비로운 슈팅스타는 모든 천체 현상 중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이 희귀한 현상은 태초부터 인류를 매료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랑 메종은 매뉴팩처에서 구상 및 개발한 전례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 매혹적인 천체 현상을 손목 위에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는 투명한 하늘을 사랑합니다. 뒤뜰에서 이 진귀한 현상에 빠져들곤 했죠. 드물게 볼 수 있는 슈팅스타의 특별한 광경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이 이 놀라운 천체 현상을 손목 위에 재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말합니다.

블루 어벤추린 다이얼을 탑재한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황홀한 밤하늘의 풍경을 생생히 재현합니다. 시계 케이스를 둘러싼 두 개의 다이아몬드 링은 랑데부 데즐링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다이아몬드 링을 장식한 다이얼 중앙에는 세 개의 중첩된 디스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도록 슈팅스타를 가려줍니다. 타임피스에 영감을 준 슈팅스타처럼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슈팅스타는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신비로운 천체 현상을 눈앞에서 감상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

### 데즐링 랑데부 소개

2019년 랑데부 컬렉션에 추가된 데즐링 랑데부는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쟈세팅 전문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피스입니다. 36mm 시계 케이스를 둘러싼 데즐링 랑데부의 베젤은 동심원을 이루는 2개의 링을 그려냅니다. 외부 링에 쟈스톤 36개를 클러 또는 '그리프 세팅'하여 케이스 주변에 떠 있는 듯 가볍지만 찬란히 빛나는 눈부신 광채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를 높이 떠받친 작은 골드 클로 덕분에 눈에 보이는 메탈을 최소화하며 스톤의 눈부신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시계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러그의 윗면 역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으며 크라운에는 인버트 세팅 다이아몬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랑데부 컬렉션의 코드를 충실히 반영하여 동심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골드 플로럴 핸즈가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이얼 중앙은 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특정 모델의 경우 시그니처 플로럴 폰트의 아플리케 숫자로 이루어진 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폴리싱 골드 반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